걸음에 '번뇌' 소멸, 절에 '지혜' 서원

수원 봉녕사 제1기 여성출가학교 일보일배 정진

수원 봉녕사=김내영 기자

금탑에서 대적광전까지
약 2km 구간서 일보일배
발원문 낭독·발우공양도
"출가학교가 선행 뿌리"


여성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을 따라 일보일배 수행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행자들.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한 수행자들이 큰 걸음을 내딛었다. 한걸음에는 일체 번뇌망상이 비워지길, 절 한 번에 진리와 지혜를 깨닫길 간절히 발원하며 정진을 이어갔다.

수원 봉녕사 제1기 여성출가학교(학교장 진상 스님, 봉녕사 주지)에 입교한 11명의 행자가 1월 31일 경내 금탑 앞에서 일보일배를 진행했다. 여성출가학교 한 달 여정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지금, 스스로를 점검하고 수행자로서의 초심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다.

아침 8시, 습의(예행연습)를 거쳐 본격적인 일보일배를 준비하는 행자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했다. 목장갑을 힘껏 당겨 손에 끼곤 여성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11명의 행자는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1보 걷고 1배를 하며 몸과 마음을 낮추고 하심을 익혔다. 여성출가학교 입승 능윤 스님, 봉녕사 교무 여요 스님, 율감 선정 스님이 행자들 곁에서 정진하며 힘을 북돋았다.

이들은 금탑을 세 바퀴 돌고 대적광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절을 하며 약 2㎞ 구간을 이동했다. 몇몇 행자는 다리의 힘이 풀려 비틀거리기도 했고, 곳곳에선 연신 참회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함께하는 도반들에 의지해 한걸음씩 나아갔다.

대적광전 앞에 다다른 행자들은 맞이한 건 여성출가학교 교장이자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스님은 도착한 행자 한 명 한 명을 격려했다. 진상 스님은 "여성출가학교가 1월 22일 고불식을 봉행하고 열흘이 흘렀다. 전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다. 공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 걱정이 많았는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오늘에 이르러 감사한 마음"이라며 "절은 운동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부처님께 '나'라는 아만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수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담마빠다' 중 한 구절을 읊으며 "한 달간의 출가학교가 세세생생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 선행의 뿌리가 되길 바란다. 출가학교의 원만회향을 위해 부단히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일보일배 정진은 칠정례를 외고, '이산혜연선사 발원문'과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여래향(54) 행자는 "지금껏 아만심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왔다. 참회한다"며 "온전히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며 '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행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마니주(17) 행자는 "중간중간 발이 꼬꾸라질 만큼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도반들 덕분에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버텨냈다"며 "평소에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다. 성격이 차분해지고 세상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제1기 여성출가학교는 2월 17일 회향식을 봉행한다.

대통령 설 선물 '십자가 그림 포장' 논란

대통령실 조계종에 공식 사과
이관섭 비서실장 · 황상무 수석
"불교계에 결례…용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설 선물에 사용된 소록도 교회와 성당 그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각계 인사에 보낸 설 선물이 기독교 상징물 그림으로 포장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불교계에 공식 사과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부주의했다.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불교계를 위해) 좋은 뜻으로 마련한 명절 선물에 이웃 종교 표식을 넣는 결례를 범했다.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

이 비서실장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아직 발송되지 않은 선물은 바로 수거해 포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미 받은 분들에게는 따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놀라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해명해줘 다행"이라며 "이전 다른 정부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땐 대응이 부족해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그러면서 "(선물 포장이) 의도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성의를 보여줬으니 종도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며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명절선물을 발송했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불교계를 위해선 특별히 아카시아꿀, 유자청, 잣, 표고채를 준비했다. 그러나 선물을 담은 상자에는 묵주를 들고 있는 여인, 십자가, 교회, 성당 등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한 것"이라고 했지만, 기도문 등이 적힌 엽서가 선물상자에 함께 담겨 물의를 빚었다. 김내영 기자

홍익대 불교학생회 '홍연' 13년 만에 재창립

1월 28일, 서울 국제선센터서 창립법회 봉행

법원 스님 · 양형우 교수 추진
작년 9월부터 준비…회원 31명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을 비롯해 홍연 재창립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

홍익대 불교학생회가 13년 만에 재창립했다.

홍익대 불교학생회 '홍연(弘緣)'(회장 남궁백)은 1월 28일 서울 국제선센터 대적광전에서 재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법 전하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1965년 창립한 홍익대 불교학생회는 탄탄한 조직력으로 활발히 운영되다 1998년 IMF 당시 활동이 주춤해졌고 2011년 결국 명맥이 끊겼다.

13년 만에 이뤄진 이날 홍익대 불교학생회 재창립에는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과 양형우 지도교수의 노력이 있었다. 중앙승가대 재학 시절 한 성대 등에서 지도법사를 한 경험이 있는 법원 스님은 깊은 역사를 가진 불교동아리가 사라진 것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에 국제선센터 신도부회장 양형진 법학과 교수와 의기투합했고 몇몇 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재창립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 이름을 '홍연'이라고 지었다. '홍연'은 '홍익대에서 만난 인연'의 줄임말이다. 이어 SNS와 학교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모집에 나섰다. 10월부터는 2주에 한 번 목요일 오후 6시 기초교리 수업을 진행했고 국제선센터에서 템플스테이도 한 차례 진행하며 신행활동을 겸한 홍보를 이어왔다. 12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홍연'에는 현재 31명이 가입한 상태다. 3월 새학기부터는 신입생 니즈에 맞는 홍보활동으로 회원모집에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우 '홍연' 지도교수는 "부처님 가르침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대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면서 "대학생불자들이 자리이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궁백 '홍연' 회장은 "동아리를 통한 인연으로 회원들이 꾸준히 활동하며 부처님 법향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정진할 것"이라고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음식·선화, 국가무형문화재 되나

문화재청, 신규종목조사 실시
국가 지정 종목 타당성 조사
생전예수재 보유단체 공모도

한국불교 전통 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음식과 불교회화인 선화(禪畵) 등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1월 29일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사찰음식 △선화 △매사냥 △울산쇠부리소리 △한글서예 △가야진용신제 △소싸움 △태권도 등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만의 전통 식문화를 보여주는 사찰음식은 선불교의 선농일치 수행정신이 계승된 무형유산이다. 사찰음식은 모든 동물성 식품과 오신채를 금하고 있으며, 자연재료로 만든 천연조미료를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선화는 불교의 선 수행 과정의 하나로, 특정 화법이나 서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재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보유자는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 스님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무형문화유산 21개 종목의 전승자를 인정할 계획이다. 동래야류, 가야금산조 및 병창(병창), 가사, 대목장, 자수장 등 13개 분야는 새로 보유자를 선정하며, 극락왕생을 위해 생전에 공덕 쌓는 불교 의례인 '생전예수재'는 관련 단체 공모와 조사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